

 <b>KBRI</b> 한국뇌연구원	<h1>보도자료</h1>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b>보다 나은 정부</b>
<b>‘19.12.13(금) 조간 (온라인 ‘19.12.12(목) 오전 9시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 (자료문의) IBRO 2019 사무국 이수미(053-980-8515, sumlee@kbri.re.kr)		

## 뇌과학의 윤리·법적 이슈를 진단하는 신경윤리위원회 워크숍 13일 개최

- 뇌연구 발전에 따른 사회적, 윤리적, 법적 문제 논의

- 현대 뇌과학과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은 인간의 심신과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불러오고 있다. 이에 파생되는 **신경윤리적·법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연구계, 의료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고민하는 논의의 장이 개최된다.**
- 한국뇌연구원(KBRI, 원장 서판길)은 국회 미래연구원(원장 박진), 신경윤리연구회(회장 이인영), 미래의료인문사회과학회(회장 김형래)와 공동으로 12월 13일(금) 연세대학교 의료원에서 **‘신경윤리연구회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워크숍은 미래의료인문사회과학회 추계학술대회의 일환으로 의료계, 인문사회 및 법조계의 국내외 전문가 약 100여명이 참석한다.
- 그간 뇌과학 분야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International Brain Initiative(IBM)’라는 글로벌 뇌연구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뇌연구 발전방향과 신경윤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으며,
  - 우리나라는 한국뇌연구원을 중심으로 미국 에모리대학교, 카블리 재단

과 공동으로 국제신경윤리회의(Global Neuroethics Summit, GNS)를 2017년부터 매년 개최하면서 세계 각국의 뇌과학 전문가들과 신경윤리 이슈에 관해 소통하고 있다.

- 금번 워크숍에서는 한·중·일 전문가들이 각국의 뇌과학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각국 시민사회의 적용과 수용 관점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와 법조계 및 언론계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각종 신경윤리 문제와 대응방안에 대한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 ▲한국뇌연구원 정성진 책임연구원, 일본 동경대학교 시게오 오카베 교수, 중국 통지대학교 지아린 쉹 교수가 한·중·일 뇌과학 발전현황을 이야기하고, ▲홍익대학교 이인영 교수, 중국 푸단대학교 지에인 교수,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 타다미 후쿠시 부국장이 각국의 법적, 윤리적 문제에 대해 개별 사례를 발표하며, ▲정창록 미래의료인문사회과학회 이사, 최경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정승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다양한 신경윤리 문제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하게 된다.
- 신경윤리연구회 워크숍 실무 책임자인 한국뇌연구원 정성진 박사는 “이번 워크숍은 ‘윤리적 뇌연구’에 대한 사회적 기준과 공감대를 만들고, 한·중·일 3국이 신경윤리를 기반으로 공동 협력연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인 뇌연구의 발전을 위해 세계 각국이 협력하여 빠른 시일 내에 올바른 신경윤리를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 붙임 1 워크숍 행사 개요

뇌신경윤리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는 신경윤리연구회 워크숍 개최를 통해 뇌신경과학과 응용기술의 발달 및 국내외 뇌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윤리적·법적인 문제를 고찰하고, 시민사회의 적응과 수용성 측면에서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 (행사명) 신경윤리연구회 워크숍

※ 미래의료인문사회과학회 추계학술대회의 일환으로 개최

### □ (주제) 뉴로사이언스(Neuroscience)의 윤리적·법적 이슈

### □ (일시) 2019. 12. 13(금), 13:30~20:30 ※ 석식시간 포함

### □ (장소) 연세대학교의료원 종합관 331호

### □ (주최) 한국뇌연구원, 국회미래연구원, 신경윤리연구회, 미래의료인문사회과학회

### □ (주관) 미래의료인문사회과학회

### □ (참석) 신경과학자, 신경윤리학자 및 관계자 등 100여명

### □ 주요내용

- 뇌과학 분야에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연구비가 투입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특히, 뇌신경과학은 인체의 물리적 속성과 작동 기제만이 아니라 심리상태와 마음의 문제까지 다루고 있으며,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느끼는 내용이 스마트폰이나 IoT 기술로 기록된다면 프라이버시 침해문제도 야기될 수 있음
- 이에, 국내외 뇌신경과학 및 뇌신경윤리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는 신경윤리연구회 워크숍을 통해 뇌신경기술의 발전에 따라 시민사회의 적응과 수용성 측면에서의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하고자 함

## □ 행사 일정

시 간	주요 내용
13:00~13:30	30분 ◦ 등록
13:30~14:00	◦ <b>개회식</b> (사회: 김소운 미래의료인문사회과학회 총무이사)
	5분 개회사 (김형래 미래의료인문사회과학회 회장)
	20분 축사 (공동주최 기관장, 국회의원)
	5분 단체사진촬영
14:00~14:55	◦ <b>세션1: 뉴로사이언스의 발전</b> (좌장: 김형래 미래의료인문사회과학회 회장)
	15분 발표1- 세계동향, 우리나라 뇌과학프로젝트 (발표자: 정성진, 한국뇌연구원 책임연구원)
	20분 발표2- 중국의 뇌과학프로젝트 (발표자: Jialin C. Zheng, 중국 Tongji 대학교 교수)
	20분 발표3- 일본의 뇌과학프로젝트 (발표자: Shigeo Okabe, 일본 Tokyo 대학교 교수)
14:55~15:05	10분 ◦ 휴식
15:05~16:00	◦ <b>세션2: 법 윤리 문제(1)</b> (좌장: 석희태 미래의료인문사회과학회 초대회장)
	15분 발표1- 국내 사례 (발표자: 이인영, 홍익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20분 발표2- 중국의 사례 (발표자: Jie Yin, 중국 Fudan 대학교 rytn)
	20분 발표3- 일본의 사례 (발표자: Tamami Fukushi,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AMED) Deputy Manager)
16:00~16:10	10분 ◦ 휴식
16:10~16:55	◦ <b>세션3: 법 윤리 문제(2)</b> (좌장: 이인영, 신경윤리연구회)
	15분 발표1 - 뉴로사이언스의 발전과 윤리적 문제들 (발표자: 정창록 미래의료인문사회과학회 이사)
	15분 발표2 - 신경윤리와 생명윤리: 무엇이 같고 다른가 (발표자: 최경석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분 발표3 - 기억 관련 신경약물학과 윤리적 문제 (발표자: 정승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16:55~17:05	10분 ◦ 휴식
17:05~18:00	◦ <b>세션4: 종합 토론</b> (좌장: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
	토론자: 신성식(중앙일보 기자), 조윤미(C&I 소비자연구소 대표), 허정호(국회미래연구원 박사), 하태길(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00~18:30	◦ <b>폐회사</b>
18:30~20:30	◦ <b>석식</b>

※ 세부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붙임 2 | 주요 참석자 명단

구분	국가	성명	소속 및 직책
한국뇌연구원	한국	정성진	한국뇌연구원 책임연구원
미래의료인문 사회과학회	한국	김형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한국	석희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한국	정창록	경북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한국	김소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신경윤리 연구회	한국	이인영	홍익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한국	최경석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	이일학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국회미래 연구원	한국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국외 초청연자	일본	Shigeo Okabe	도쿄대학교 교수 일본 브레인프로젝트 Brain/MINDS 프로젝트 총괄책임자
		Tamami Fukushi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AMED) Deputy Manager
	중국	Jialin C. Zheng	통지대학교 교수
		Jie Yin	푸단대학교 교수
패널	한국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
	한국	조윤미	C&I 소비자연구소 대표

## 붙임 3 | 워크숍 포스터